

# “확박한 서민 살림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광주 남구 착한가격업소 명동헤어센스 최이순 사장

30여년전 미용실 오픈...커트 6천원 등 가격 저렴

2021년 지정...거동불편 환자 요청땀 방문서비스

“앞으로도 제 위치에서 변함없이 고객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명동헤어센스가 그곳이다. 최이순(58·여·사진) 사장은 지난 2021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후 재료비 상승 및 주변 업소 등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커트 가격을 6천원으로 유지 중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지역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다.

최 사장은 12일 “매일 같은 시간에 영업을 하고 머리를 잘랐을 뿐인데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돼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30여년 전 봉선동에서 명동헤어센스를 열었고, IMF 당시에도 커트 가격을 3천원으로 고정했다. 이유는 딱 하나, 단골들과 먼 곳에서 찾아온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작게



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저렴한 가격에 실력도 좋다는 이른바 가성비 좋은 미용실로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다.

최 사장은 “어릴 때부터 미용에 꿈이 있었지만 이른 나이에 결혼해 꿈을 포기 했었다”며 “이후 꿈을 이루고자 미용에 다시 도전하고 운이 좋아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 지금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머리감기 등은 셀프로 유도하고 있다”며 “셀프로 머리를 감을 시 2천원을 더 할인해 주고 있어 대부분의 손님들이 4천원에 커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 등 기존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 커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최 사장은 “물가가 비싸 머리 자르기도 쉽지 않은데 이곳에 오면 너무 편하다고 얘기할 때 보람을 느끼곤 한다”며 “인내와 끈기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웃었다. /주성희기자



## 광주매일신문, 보람아동센터 ‘NIE 3차 순회교육’

지역신문 발전기금 미디어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 아동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9일 북구 보람아동센터 방문, 제3차 신문만들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 2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

을 공부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고하음(오정초 4)·서지민(오정초 3)·김태림(오정초 2) 학생은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과 기사를 직접 편집디자인했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 전남도-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119토목구조대’ 협약

전남도는 12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현장 대처를 위한 ‘119토목구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대단위 재난피해에 대응해 전문가의 24시간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는 효율적인 119토목구조대 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남도와 실무협의를 구성·운영한다. 119토목구조대는 대한토목학회 회원들의 자

발적 참여와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토목구조 및 시공, 토질, 수공, 항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교수와 기술사를 포함한 전문가 30명이 참여해 전남도내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와 도민 안전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을 한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 과제인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 안에 토목·구조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119토목구조대가 안전한 전남 실현에 힘과 지혜를 더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개발공사 ‘J&CUP 유·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전남개발공사는 12일 “지난 10일 목포국제체육센터에서 ‘제3회 J&CUP 유·청소년 풋살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전남개발공사장배 J&CUP 유·청소년 풋살대회에는 초등부 16개 팀, 중등부 16개 팀 등 총 32개 팀 2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학교, 클럽 등 참가 선수 교류의 장을 마련해 경쟁과 승패를 떠나 참여와 존중, 선수들 간 협동심을 키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등부 우승은 PIZFC팀이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세한FC팀, 공동 3위는 낭만FC, 상운파FC팀이 차지했다. 또 초등부에서는 연산FC팀이 우승, 동네축구팀이 준우승, 공동 3위는 어쩌다FC, 향도FC팀이 이름을 올렸다.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현대산업개발, 빗고을노인타운서 나무심기 봉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환경의 날을 맞아 광주시 빗고을노인건강타운에 산책로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나무심기 봉사활동에는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 소속 임직원 15명이 참석, 1천만 원 상당의 묘목을 심었다. 추후 묘목은 빗고을 건강타운을 찾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울타리길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식재된 울타리 묘목들이 타운에 방문하는 노인가족들의 정서와 타운 내 숲 환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호명기 HDC현대산업개발 A1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여러 단체와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행복 구현에 미력하거니와 힘을 보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市교통문화연수원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주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의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달부터 두 기관은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현안 사항 및 정보 공유 ▲교통안전교육·홍보·캠페인 ▲교통사고 현황 분석 및 사고 예방대책 발굴 등으로, 이를 통해 광주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이달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할 배달라이더 체험교육에 전문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시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들어요) 캠페인’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법열 광주전남본부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교통안전사업의 발굴·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 서해해경청 목포광역VTS, 태풍내습 대응 간담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VTS)에서 태풍내습 대응 계획 논의-VTS 이용자 간 업무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조선소, 선사 등 유관기관 및 업체·단체 13곳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광역VTS에서는 참석자들과 협력체·태풍내습 대비 해상교통관제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태풍 현황 분석·전망 ▲태풍내습 시 선박 안전 관리대책·협조사항 논의 ▲항로상 장애물, 불법어로 행위 등 해상교통 문제점 발굴 ▲개선사항 수립과 해양사고 예방 협조 체계 강화 등이다. /목포=정해선기자



박종익 목포광역VTS 센터장은 “앞으로도 이용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위험요소 파악·발굴·개선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동참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2일 집무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문 부지사는 한원회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의 지령으로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윤보현 국립남주병원장을 지명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전문지도자 스쿨’ 수료식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12일 “전날 광주 YMCA에서 ‘전문지도자 스쿨’ 과정을 이수한 3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지도자 스쿨’ 과정은 자원봉사자의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를 돕는다.

지난달 20일 시작한 올해 교육과정에선 ‘아동 & 가족봉사단, 청소년봉사단, 청년봉사단’을 구성, ▲색종이접기지도사 1급 자격과정(아동 & 가정) ▲보드게임지도사 1급 자격과정(청소년) ▲반려동물관리사 1급 과정(청년)에 대해 2주간 전문교육강좌를 실시했다.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거친 교육생들은 전문영역에서 매일 기획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재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실히 해당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전문지도자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앞으로 지역 사회에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 송원대 치위생학과, 예비치위생사 선서식

송원대학교는 12일 “전날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의료 복지 구현을 다짐하는 제14회 예비치위생사 선서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서식에는 치위생학과 이희호 학생 등 20명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이후 첫 선서식으로 의미를 되새겼다.

선서식은 내빈 및 축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임상 실습에 앞서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료진료 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 의료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신영 송원대 치위생학과 학과장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인의 힘찬 출발에 온 마음을 담아 격려의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다이지

## 부음

▲김순영씨 별세, 박재홍(주영무건설 회장)·박현택(주TY영무대표)씨 모친상=발인 13일(화) 오전 8시30분 광주 서구 매일동 VIP장례터 VVIP 201호 (062-521-4444).